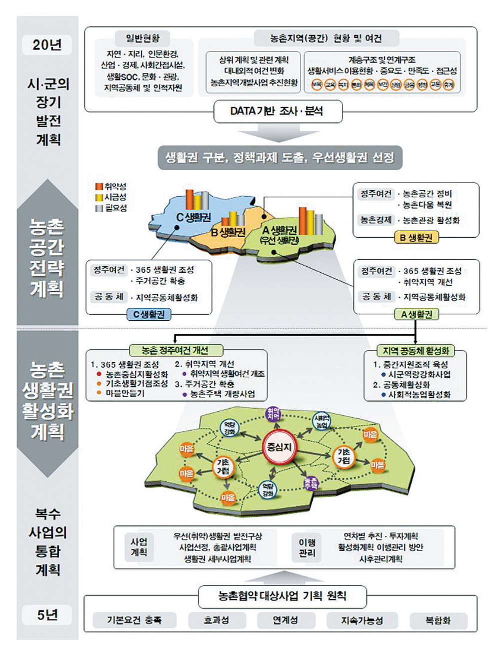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살고 싶은 농촌 위해 지자체와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3.4.26.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난개발과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5년간 평균 268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농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이 외에도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2024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나선다. 4월 26일 보도자료.